

역사·전기소설과 디아스포라

- 『권업신문』 소재 역사·전기소설을 중심으로 -

송 명 진*

1. 지리적 경계 이탈과 이산(離散) 문학
2. 러시아 한인 사회의 민족주의
3. 동시대 인물의 민족 영웅화
4. 민족의 역사로 대체된 국가의 역사
5. 러시아 한인과 역사·전기소설

〈국문초록〉

본고는 일제 식민지 시기에도 여전히 민족이 절대적 화두였던 러시아 한인 사회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이 지역에서 발간된 『권업신문』의 역사·전기소설의 서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권업신문』 소재 역사·전기소설은 크게 전(傳)과 사(史)로 구분되었다. 먼저, 인물을 입전했던 역사·전기소설은 일본 제국주의를 직접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인물들을 서사화했다. 애국계몽기 역사·전기소설이 다양한 시기의 전쟁 영웅을 민족 영웅으로 호출함으로써 강인한 민족사를 구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면, 『권업신문』의 역사·전기소설은 일본 제국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던 서사라 할 수 있다.

둘째, 『권업신문』에 게재되었던 역사·전기소설 「중국혁명략스 속」의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우교수

서사적 특징을 고찰했다. 신해혁명은 중국에서 최초로 공화정을 세운 근대적 혁명이지만, 『중국혁명략스 속』에서 신해혁명은 만주족의 오랜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 한족(漢族)의 민족 혁명으로 형상화되어 있었다. 『권업신문』은 망국의 상황에서 ‘민족’을 화두로 생활하고 있는 러시아 한인들에게 한족(漢族)의 역사를 통해 한(韓)민족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민족을 화두로 한 역사·전기소설이 경술국치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해외라는 지리적 이점(利點)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러시아 한인 사회에서 발간된 『권업신문』의 역사·전기소설에 대한 본고의 연구는 그동안 애국계몽기로 한정되어 연구되었던 역사·전기소설 연구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의의와 더불어 1910년대 러시아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이산(離散) 문학에 대한 조망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권업신문』, 역사·전기소설, 러시아 한인, 디아스포라, 안중근 전, 중국혁명약사

1. 지리적 경계 일탈과 이산(離散) 문학

혁슬리의 『진화와 윤리』를 『천연론』으로 번역했던 엄복(嚴復)은 혁슬리의 사상을 소개하면서 말미에 ‘복안(復案)’을 두어 진화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엄복은 냉엄한 진화론적 세계 인식에 동의하면서도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패자의 위치로 전락한 중국에 대한 걱정을 숨기지 않았다.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 패배한 자는 수가 날로 줄어들 것이니, 인구가 많다고 어찌 안심할 수 있겠는가! 어찌 안심할 수 있겠는가!”²⁾

중국에 진화론을 전파한 것은 엄복의 『천연론』이 최초는 아니었다. 그

2) 엄복, 양일모·이종민·강증기 역, 『천연론』, 소명출판, 2008, 72쪽.

럼에도 불구하고 엄복의 논의가 획기적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요시자와 세이치로는 진화론을 개체와 개체의 대결이 아니라 종(種)·군(群)의 대결로 인식했다는 즉, “‘중국’, ‘한족’, ‘민족’”등으로 표현되는 집단의 문제로 진화론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논의했다.³⁾ 내부적으로는 단결을, 외부적으로는 대결을 강조하는 집단의 속성이 진화론적 세계 인식을 계기로 생존을 위한 기본 원리로 등장한 것이다.

일제에 의한 식민화의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에서는 ‘민족’이라는 어휘가 생존을 위해 단결해야만 하는 집단의 표상으로 강조되었다. ‘백성’, ‘국민’ 등의 어휘와 뒤섞여 사용되던 ‘민족’이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지배적인 구심점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대한매일신보』의 한 논설에서 “이 데국주의를 저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굴으되 민족주의의 다른민족의간섭을 빗지아니하는 주의 …(중략)… 이 민족주의는 실노 민족을 보전하는방법이라”⁴⁾라는 언급은 ‘민족’이라는 어휘가 사용되던 당대의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애국계몽기 역사·전기소설은 집단의 논리 속에서 새롭게 강조된 ‘민족’이라는 어휘를 서사화의 논리를 통해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 을지문덕, 이순신 등과 같은 전쟁 영웅을 민족 영웅으로 서사화함으로써, 역사·전기소설은 민족을 중심으로 한 아(我)와 비아(非我)의 경계를 구체화했다. 또한 『파란말년사』, 『월남망국사』 등과 같은 망국에 대한 선험적 체험을 통해, 역사·전기소설은 민족을 생존을 위해 단결해야만 하는 집단의 표상으로 서사화했다. 역사·전기소설은 ‘민족’을 전경화함으로써 개화기 서사문학의 한 갈래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망국의 상황은 민족을 표상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전기소설의 출판을 어렵게 만들었다. 기존에 출판되었던 『월남망국사』, 『을지문덕』 등이 일제에 의해 발매 금지 및 압수 처분되는 상황에서 민족을 표상

3) 요시자와 세이치로, 정지호 역, 『애국주의의 형성』, 논형, 2006, 59-60쪽.

4) 「데국주의와 민족주의」, 『대한매일신보』, 1909.5.28.

하는 새로운 역사·전기소설의 출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1979년 ‘한국학문헌연구소’에서 10권으로 편찬한 ‘역사·전기소설’의 목록이 모두 경술국치 이전의 작품으로 한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역사·전기소설은 경술국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술되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인(韓人)들은 국가의 멸망을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되었던 민족이 존재하는 한, 국가의 부활은 당연한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박은식은 민족혼의 절멸을 막기 위해 『한국통사』를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다. 민족혼의 지속은 궁극적으로 민족의 신체인 국가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⁵⁾ 민족의 보존을 통해 국가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이 존재하는 한, 역사·전기소설과 같은 서사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술국치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일제에 의한 출판물 검열은 더 이상 민족을 전경화한 역사·전기소설의 출판이 국내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경술국치 이후, 역사·전기소설에 의한 민족의 서사화는 해외에서나 가능한 현실이었다.

국가가 멸망한 후, 많은 한인들은 해외로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했다. 정치적 억압 상태였던 한국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 이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민족’, ‘독립’ 등과 같은 담론들을 생산할 수 있었다. 공간적 불연속을 통해 민족과 독립에 관한 금기된 담론들이 생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해외 한인들은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협회를 조직했으며 더 나아가 회보, 신문 등과 같은 출판물을 통해 한(韓)민족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지속시키고자 노력했다.

『권업신문』, 『신한민보』 등은 해외 거주 한인들에 의해 발간된 대표적인 신문들이다. 『권업신문』은 러시아 한인들로 구성된 권업회에서 1912년 4월 22일에 창간한 신문이며⁶⁾ 『신한민보』는 국민회 북미지방총회에

5) 앙드레 슈미드, 정여울 역,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 2007, 330쪽 참고.

6) 박환,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탐구당, 1995, 145-148쪽 참고.

서 『공립신보』를 개제(改題)하여 1909년 2월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발간한 신문이다.⁷⁾ 이들 신문은 주로 해외 한인들의 삶을 알리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민족의식 고취의 일환으로 『권업신문』에서는 「중국혁명략스 속」, 「만고의스 안중근전」과 같은 역사·전기소설을 연재했으며, 『신한민보』에서는 「동국명장광직우」, 「임진왜란스」 등과 같은 역사·전기소설뿐만 아니라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했던 「연하슈군데－위인리슈신」을 량화쥬선에 의해 국문으로 번역하여 연재하기도 하였다. 이들 서사는 근대 소설의 미적 의식보다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서사화했던 애국계몽기 역사·전기소설의 형태를 계승하고 있다.

경술국치 이후, 해외 한인 지역 중에서 강한 민족의식을 견지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는 연해주였다. 망국(亡國)으로 인해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었던 많은 민족적 인사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연해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1895년부터 의병활동을 전개했던 유인석은 경술국치 이후 주로 연해주에 근거지를 두고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저격했던 안중근 역시 연해주를 주 무대로 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에 의해 러시아의 한인들은 경술국치 이후 적극적인 민족의식을 견지했던 한인 공동체였다. 따라서 이곳에서 발행되었던 『권업신문』 역시 항일 의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으며 그러한 항일의식의 중심에는 역사·전기소설이 자리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러시아 한인 사회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권업신문』에 게재되었던 역사·전기소설의 서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는 그동안 애국계몽기로 한정되어 연구되던 역사·전기소설의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1910년대 연해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이산(離散) 문학에 대한 조망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7) 최기영, 「구한말 ‘공립신보’·‘신한민보’에 관한 일고찰」, 『동아연구』 17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575-576쪽.

2. 러시아 한인 사회의 민족주의

한인의 러시아 이주는 대략 18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해조신문』 창간호에서 최봉준은 “서력 일천팔백륙십삼년은 곳 음력 갑자지년이라 우리 동포 십여가구가 처음으로 이아국디방 디신허에 건너와서 황무지디를 기척하고 인허야 살음익”⁸⁾라고 기술하면서 1863년부터 한인이 러시아에 이주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러시아 이주 상황을 상세히 밝히고 있는 『독립신문』의 「아령실기」(1920.2.26-1920.4.8. 총 12회 연재) 역시 “地新墟의開拓 紀元四一九七年甲子春에 茂山崔運寶, 慶興梁應範二人이 가만히豆滿江을건너琿春을經由하야地新墟(此는烟秋等地)에來住하야新開墾에着手하니(지신허의 개척, 단기 4197년 갑자년 봄에 무산 최운보와 경흥 양운범 2인이 두만강을 건너 혼춘을 경유하여 지신허로 이주하여 신개간 착수하니)”⁹⁾라고 서술하면서 최운보, 양운범 양인에 의해 러시아 이주가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연도는 각각 1863년과 1864년으로 상이하지만 ‘갑자’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연도로서, 이를 토대로 추정할 때 한인의 러시아 이주는 대략 18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인의 러시아 이주는 대략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860년대부터 시작된 이주는 대부분 조선후기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경제적 이주가 대부분이었다.¹⁰⁾ 이들은 아직 제정러시아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연해주 부근의 토지를 경작하면서 생활하였다. 그러다가 1910년을 전후하여 망국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이주가 본격화되었다. 이때부터 러시아의 한인은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김계르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연해주 지역 한인은 1906년 34,399명에서 1910년 50,96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¹¹⁾

망국의 상황은 한인들의 해외 거주지를 민족주의에 근거한 항일을 위

8) 「발간호논말」, 『해조신문』, 1908.2.26.

9) 「아령실기(1)」, 『독립신문』, 1920.3.1.

10) 이상근, 『러시아·중앙아시아 이주한인의 역사』, 국학자료원, 2010, 44-47쪽 참고.

11) 김계르만, 『한인 이주의 역사』, 박영사, 2005, 167쪽.

한 거점으로 재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해외 한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강조된 민족주의는 비단 항일이라는 정치적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았다. 망국이라는 현실에서,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강조되는 민족주의란 정치적 문제를 넘어선 삶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러시아 한인들에게 민족주의는 먼저 내부적인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로 기능했다. 러시아 한인의 배일사상에 주목하고 있었던 일본은 러시아 한인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했다. 첫째는 한일합방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한인들로 1880년 즈음부터 러시아로 귀화하여 종교뿐 아니라 사상, 습관까지 러시아화된 한인들이다. 둘째는 이 부류에 속하지 않는 한인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이다.¹²⁾ 러시아로의 귀화 여부는 러시아 내에서 한인의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였다. 이상근의 논의에 따르면, 러시아로 귀화한 한인들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일정한 토지를 분양받은 원호(元戶)가 되었으며, 러시아로 귀화하지 않은 한인들은 여호(餘戶)라 하여, 러시아 지주 혹은 원호의 토지를 소작하며 생활을 영위했다.¹³⁾ 토지의 불하에 따른 경제적 지위의 차이와 지주와 소작의 관계 등은 러시아 귀화 여부에 따른 한인 사회의 갈등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러시아 한인 사회의 갈등은 비단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911년 6월 1일 ‘권업회’가 조직되기 이전부터 러시아 내의 민족주의를 실천했

12) 『권업신문』 1913년 8월 31일자 논설에는 일본의 ‘외교시보’가 ‘루령거류조선인 문데’라는 제목으로 번역 게재되어 있다.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항일 세력에 대한 관찰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서술된 이 논설에서 일본은 러시아 한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루령조선인중에 민처음에는 즉 서력 一千八百八十年즈음에 루시아에 귀화호야 종교도 곱히고 우수리 지방과 또뽀시에트 방면에 농업호기로 이주호것이 수천인이 잇었으나이러호 조선인은 다만 국적뿐만아니라 사상 습관도 일즉이 루시아에 동화된 까닭에 한국의 합병은 그무리에게는 자못 상관이 업게 되었더라 그럼으로 우리의 연구호것은 그무리밧게 잇으니 미국에도 의지호지안코 루시아에도 의지호지안코 다만 고국의 독립을 도모치안님이 불가호다고 주창호는 극동 루령지방에 널리 칩복호 조선인에 디호야이것을 국 제덕으로 관찰코져호에 있음”이라고 러시아 한인을 분석하고 있는 일본은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일·루 범죄인 인도조약’ 실행을 주장하고 있다.

13) 이상근, 앞의 책, 52-53쪽.

던 인사들 내에서도 분열이 존재했다. 이상설, 윤일병 등으로 구성된 ‘서울파’와 정재관, 이강, 김성무 등으로 구성된 ‘평양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호 대립을 극복하고 재러 한인의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의 필요성에 의해 권업회는 조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양 파의 대립을 견제하기 위해 최재형, 홍범도 등과 같은 러일전쟁 이전부터 러시아로 이주했던 한인들로 구성된 북한파에 권업회의 조직 운영을 맡겼던 것이다.¹⁴⁾ 그러나 권업회가 조직된 이후에도, 러시아라는 특수한 지역적 한계에 의해 한인 사회의 갈등은 두드러지지 않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속되었다. 그래서 이동휘는 러시아 한인들에 대한 국내 동포들의 기대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척임을 다하고져할때에 스업상 경정은 맞당히 잇을지나 권리정정을 위하야 남을 음히하고 질시히지말것이며 …(중략)… 기인의 명예를 위하야 남을식고하고 업수히녁이지 말지니라”¹⁵⁾라며 러시아 한인들의 단결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 한인 사회를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재구축하는 과정은 항일이라는 민족적 문제이기도 했지만 러시아 한인 사회 내의 다양한 갈등 즉, 러시아 귀화 여부에 따른 갈등, 국내 출신 지역에 따른 갈등 등을 봉합하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족주의는 러시아 한인들의 정체성 형성과도 긴밀한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러시아에 거주하면서도 러시아에 귀화하지 않은 한인은 러시아와 일본의 외교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내포한 존재들이었다. 러시아로 귀화했다면 러시아 국민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러시아로 귀화하지 않은 한인은 민족으로는 한인(韓人)이지만 국적으로는 일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로의 귀화는 급증했다.¹⁶⁾ 특히, 이전 총독 운테르베르게르와는 달리 한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곤다티는

14) 박환, 앞의 책, 114-132쪽 참고.

15) 「아령동포에게 고향노라」, 『권업신문』, 1913.7.27.

16) 윤인진·박상수·최원오 편, 『동북아의 이주와 초국가적 공간』, 아연출판부, 2010, 122-123쪽 참고.

“이주 한인들에게 러시아는 제2의 조국이며, 러시아 땅에 정착한 한인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향후 한인들에 관한 문제에서 일본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¹⁷⁾이라면서 조선인을 포용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며, 한인 가운데에서도 “저 원슈의 노예굴레를 쓰기보다 차리라 제마음대로 타국에 귀화 국민되느것이 마지못흐는 일이라.”¹⁸⁾라면서 귀화를 결심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타국이라는 지리적 한계, 귀화라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민족주의는 러시아 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권업신문』은 국어와 역사에 대한 강조를 통해, 러시아 한인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노력했다.

‘국어’(國語)라는 명칭은 해외의 한인들에게만 유효한 용어였다. 왜냐하면 일제 시대 ‘국어’란 곧 일본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훈민정음을 지칭하던 ‘국문’(國文)이란 용어가 일제시대에 ‘한글’이라는 용어로 바뀐 사실은 이를 대변한다.¹⁹⁾ 그런데 러시아 한인들에게도 ‘국어’의 명칭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기보다는 의식적 노력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었다. “제나라말을 잘모르고는 제나라싱각이 날수엄스며”라고 주장하는 『권업신문』의 한 논설은 생활상의 이유로 러시아어를 배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국어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가르치지 않는 부형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학교의 이민족 방침(이민족에게 자기 나라 국어를 배울 시간을 줌), 종교의 상황(러시아정교회 등이 국어로 전도함), 국어를 먼저 배운 학생의 높은 학업 성취도 등을 언급하면서까지 국어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이국에서 국어를 보존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업신문』은 조국 혹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앞세워 러시아 한인들에게 국어를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⁰⁾

17) 이항준 외,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008, 33쪽에서 재인용.

18) 「고향 생각을故鄉戀」, 『권업신문』, 1914.3.15.

19) 이혜령, 「한글운동과 근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27집, 대동문화연구원, 2004, 251쪽 참고.

한편, 역사에 대한 강조는 국가의 역사에서 민족의 역사로 그 강조점이 바뀌었다. 경술국치 이전에 주로 강조되었던 망국사(『월남망국사』, 『파란말년사』 등)는 이제 망국 이후에도 민족의 보존을 지속시킨 역사로 대체되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국가 없이 민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유지되어 왔던 유대민족은 국가의 소멸로 그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는 러시아 한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다. “나라이망흔지 임의 二천년이나 갓가왔으되 오늘날까지 유딴국민덕 싱익을 햏여왔음으로 유딴국말을 보전햏아왔으며 유딴국 글을 보전햏여왔으며 …(중략)… 나라가 망흔지 근량천년이나 오릿도록 유딴국의국슈를능히 보전햏였으며 유딴국민의 일흠으로 능히 싱존을유지햏얏을뿐더러 오늘날세계에 돈만은 민족을 세자면 유딴민족이 몇직안가게 되었으니 누가 오늘날 정신샹 유딴국이 업다햏리오.”²¹⁾라는 『권업신문』의 한 논설은 민족으로 대변되는 ‘정신적 국가’를 통해 러시아 한인들의 정체성 형성과 단결을 촉구했다.

『권업신문』의 화두는 여러 논자들이 강조했듯이 ‘민족주의’였다. 망국의 상황에서는 전개될 수 없었던 민족주의가 공간적 불연속에 의해 해외한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한인 사회의 민족주의는 반드시 항일이라는 정치적 이유에서만 강조된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 귀화 여부에 따른 갈등, 민족 내부의 갈등 등과 같은 내적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민족주의는 활용되었다. 한편, 망국에 의한 타국에서의 삶은 개인의 정체성 문제를 이슈화했다. 곤다티 총독의 우호 정책에 따른 러시아로의 귀화라는 매력적인 현실의 조건들은 러시아 한인들의 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국어와 역사를 통해, 한인들에게 정신적 국가로서의 민족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20) 「하귀방학에 국어강습」, 『권업신문』, 1914.5.31.

21) 「국민덕싱익」, 『권업신문』, 1913.4.20.

3. 동시대 인물의 민족 영웅화

망국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속되었던 러시아 한인의 민족 의식은 『권업신문』에 게재된 역사·전기소설을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러시아라는 이국의 지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역사·전기소설을 통해 서사화된 한민족의 인물과 역사는 한인으로서의 민족 의식을 갖게 하는 데에 기여했으며 이는 또한 궁극적으로 러시아 한인이라는 정체성 위에 설립된 ‘권업회’의 지속을 가능하게 했다. 망국과 디아스포라 그리고 권업회의 지속이라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권업신문』에 게재되었던 역사·전기 관련 서사 양식은 다음과 같다.

국혁명략스 속 1912.5.26.~1912.10.27.

만고의스 안중근전 1914.6.28.~1914.8.29.

빨간반도에식로흥흥세나라(상)·(하) 1912.11.24.~12.1.

몬테네그로대왕니콜라쓰의니야기 1913.1.26.

모범 홀만훈 인물의모범 홀만훈일로퇴계선상의형적을드노라
1913.2.9.

빨간전쟁과용감한녀장군, 1913.2.9.

정문부쇼전 1913.12.~27.

서산대사의쇼전 1914.1.11.

황진쇼전 1914.1.18.

림중량쇼전 1914.1.25.

이 가운데 「중국혁명략스 속」과 「만고의스 안중근전」은 일정 기간 동안 연재된 중·장편 형식을 띠고 있는 반면, 주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전(傳) 형식은 하루 혹은 이틀 정도 사이에 게재된 ‘소전(小傳)’의 형식을 띠고 있다. 몬테네그로의 니콜라스 왕, 발칸전쟁의 여성 영웅 소피아 등과 같은 외국 인물에서부터 자린고비로 불리는 한척(韓滌)까지 비교적 다양한 인물의 스펙트럼을 보이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군 즉, 정문부, 서산대사, 황진, 임중량 등은 모두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장수들이다.

경술국치 이전의 역사·전기소설에서 주로 입전되었던 인물들은 민족의 강인한 유전자를 구성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시기를 불문하고 민족의 영웅으로 호출되었다. 을지문덕, 연개소문 등과 같은 인물이 민족 영웅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라는 강한 적과 맞서 싸웠던 고구려의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술국치 이전의 역사·전기소설에서 입전된 인물들을 통해 형상화하고자 했던 것은 자강(自強)에 기초한 위대한 민족의 후손이라는 신화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술국치 이후, 『권업신문』의 ‘소전’ 형식을 통해 입전된 인물들은 대부분 임진왜란 시기의 전쟁 영웅들이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한 당시의 상상력이 강인한 민족사 구성보다는 일본에 대한 투쟁심을 강조한 결과다. 황진이 진주에서 왜군들에서 포위되었을 때, 굴하지 않고 “곶말을타고 뛰어나가 장검을좌우로 돌너 왜놈의머리가 추풍락엽갓치떨어지며 왜놈의 피가 뿌리워서 공의수염에 엉킨것이 마치얼음 고드름이 달인 듯”²²⁾ 한 풍경을 연출한 것은 경술국치의 치욕을 서사적 상상력으로 갈음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대동강에서 임중량이 왜군들에게 소리친 “이 기도야지 무리덜아 너히논 너의인군을 죽이고우리나라의 방비엄습을 틈타서 한뼘를 자랑흐나 오늘은 너의대역무도흔 왜적의무리를 다츰살흐리라”²³⁾라는 외침은 러시아 한인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 하고자 했던 언사를 대신 하는 것이었다.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전쟁 영웅을 형상화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분노를 통해 민족 의식을 서사화했던 『권업신문』의 ‘소전’은 「만고의스 안중근전」을 통해 동시대의 인물을 입전하기에 이른다. 소전들이 과거에 대한 상상력을 통해 현재를 대체하고자 했다면, 「만고의스 안중근전」은 치열한 동시대성을 서사화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를 민족 의

22) 「황진소전」, 『권업신문』, 1914.1.18.

23) 「임중량소전」, 『권업신문』, 1914.1.25.

식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던, 역사·전기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인 작품이다.

『권업신문』에 연재되었던 「만고의스 안중근전」은 재외 한국학 연구자인 계봉우의 작품이다. 1880년 함경도 영흥에서 출생한 계봉우는 망국과 함께 망명길에 올라 북간도와 연해주에서 조국독립운동을 벌였으며 그리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마지막까지 국어, 국문학, 한국 역사를 비롯한 한국학 연구에 매진하다가 1959년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독립운동이 공산주의와 관련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그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인물이다.²⁴⁾ 계봉우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다각적 연구를 시도했던 윤병석은 계봉우의 업적에 대해 “제국주의에 의한 한민족 수난기에 기구한 역사를 전개시킨 러시아 지역 고려인(한인) 사회를 상징하는 ‘한국학’”²⁵⁾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만고의스 안중근전」은 경술국치 이전부터 역사·전기소설을 형성하는 지배적 사상이었던 자국 중심의 역사관과 영웅 숭배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서론’에서 “신하팽오는 아는자가만흐되 단군뎌에 오랑캐를물니치고 빅성을 잘살게 흐시든 장군팽오는 아는자 엄스며 조왕의 맛아들 무홀을 아는자만흐되 단군강토를 다시회복흐든고구려의 대무신왕 무홀을 아는자 엄스며 당태종의 신하 을지경덕은 아는자 만흐되 청천강에 슈병빅만을 고기빅에 장스흐던 을지문덕은 아는자엄스며”²⁶⁾ 등과 같은 논의는 경술국치 이전부터 강조되었던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대한 강조다. 또한 “우리민족의 영웅숭비흐는마음이 엇지이럿듯 느졌든가”²⁷⁾와 같은 구절은 신채호와 박은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던 영웅 숭배와 관련된 논의다. 그러므로 『권업신문』의 「만고의스 안중근전」은 경술국치 이전의 역사·전기소설의 기본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4) 윤병석, 「계봉우의 민족운동과 한국학」, 『한국학연구』 2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421-422쪽 참고.

25) 윤병석, 앞의 책, 433쪽.

26) 「만고의스 안중근전」, 『권업신문』, 1914.6.28.

27) 「만고의스 안중근전」, 『권업신문』, 1914.6.28.

하지만 과거의 인물이 아닌 동시대의 인물을 입전한다는 점에서 「만고의스 안중근전」은 이전의 역사·전기소설과 변별적 차이를 지니게 된다. 픽션과 논픽션의 관계는 지시대상의 유무와 관련지어 논의될 수 있다. 즉, 픽션은 스토리와 담화의 상호관계로 한정되는 데 반해, 논픽션은 스토리와 담화의 관계가 항상 이것이 지시하는 지시대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포터 애벗은 지시대상을 염두에 두는 서사 양식은 허구가 줄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을 전달한다고 주장했다.²⁸⁾ 실제로 을사조약 체결에 치욕을 느꼈던 민영환의 자결은 다른 어떤 역사·전기소설들보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민영환이 쓰러진 자리에 피 묻은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소위 ‘혈죽’ 사건은 그 자체로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비현실적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영환이라는 현실 속의 지시대상과 접촉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애국심으로 들끓게 했다.²⁹⁾

과거 인물이 아닌 동시대 인물인 안중근을 입전했다는 점에서 「만고의스 안중근전」 또한 독자들에게 사실(fact)이 전달하는 감동을 선사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과거 인물을 입전한 역사·전기소설 역시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시대성을 상실한 과거의 사실이 주는 감동이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만고의스 안중근전」이 형상화하고 있는 맥락이 독자들에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만고의스 안중근전」의 픽진성(verisimilitude)은 높아진다. 「만고의스 안중근전」이 형상화하고 있는 서사 세계는 단순히 서사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중근이라는 동시대적 인물을 통해 현실 세계와 접촉하기 때문이다. 안중근이 평안남도에서 설립한 학교의 개학식을 치를 때, 술을 권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안중근이 “나는 장차 독립연호날에 술을 먹을지언정 청신업는 술入군이 한갓되고자 안이호노라”³⁰⁾라고 일갈하는

28) H.포터 애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275-280쪽 참고.

29) 앙드레 슈미드, 앞의 책, 334-337쪽 참고.

것은 비단 서사 내의 사람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망국의 현실을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향한 것이 되며, 안중근이 죽기 직전 외쳤던 ‘대한독립만세’ 역시 곧 망국의 절망에 놓인 한인들의 염원이었다.

『권업신문』에 게재된 「만고의스 안중근전」은 동시대적 인물을 입전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뛰어넘는 깨달음을 전달하기에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경술국치 이전까지 지배적이었던 과거 인물의 민족 영웅화 경향을 염두에 두었을 때, 「만고의스 안중근전」은 동시대 인물의 민족 영웅화라는 점에서 역사·전기소설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서사 세계의 민족 영웅 안중근은 안중근이라는 동시대적인 지시대상을 통해 러시아 한인을 한민족의 일원으로 구성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4. 민족의 역사로 대체된 국가의 역사

국가와 민족 가운데,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경술국치를 전후로 한 논설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1907년 11월 19일자 『대한매일신보』 논설 「보충보국론」은 “인종 보전하기를 생각지 아니하고 나라 보전하기만 구하면 그나라를 능히 보전하고 그 인종은 스스로 보전하려니와 만일 나라보전하기는 생각지 아니하고 인종을 보전하기만 구하려다가는 그 나라를 보전치 못하고 그 인종이 썩라 망할거시니”라면서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에 대한 강조는 경술국치 이후, 민족에 대한 강조로 변화했다. 1912년 6월 23일자 『권업신문』 논설 「국슈주의와히외동포」에서는 “나라잇는 민족이라도 국슈주의가 업스면 망호는 나라업는 민족이라도 국슈주의가 잇으면 흥호는니 이는 동서양력스에 상고함이 틀끗만 치도 틀리지안은 스실이로다”라고 강조했다.

30) 「만고의스 안중근전」, 『권업신문』, 1914.7.19.

망국의 상황에서 보다 강조된 ‘민족’은 『권업신문』에 게재된 역사·전기소설 가운데 전(傳)의 형식보다 사(史)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은 「중국혁명략스 속」이 유일하다. 비록 자국의 역사가 아닌 타국의 역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아닌 현재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중국혁명략스 속」의 특징이다. 『중국혁명략스 속』은 1911년 중국에서 일어난 신해혁명을 서사화하고 있다.

신해혁명의 의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왕조체제를 붕괴시켰고, 중국역사상 최초의 공화국체제를 출현시켰다”³¹⁾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권업신문』에 게재된 「중국혁명략스 속」은 신해혁명을 만주족과 한족(漢族)의 대립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만주족의 오랜 지배를 받아왔던 한족(漢族)이 자신의 민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주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관점이 「중국혁명략스 속」의 기본적 입장이다.

「중국혁명략스 속」은 청(淸)을 세운 누르하치와 관련된 논의로 시작된다. 명나라 황제가 이성량으로 하여금 여진족의 한 지역인 건주(建州)를 치게 했는데, 그때 포로로 사로잡혔던 누르하치를 이성량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놓아준 일화에 대해 서술자는 “일시에 눈이 어두어 함명을 열고 범을 노왓도다.”³²⁾라고 평가한다. 동시대에 일어났던 신해혁명을 청(淸)을 건국한 누르하치와 관련지어 논의하는 것은 신해혁명을 민족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대 스빅쥬의토디가 조고 마흔부락추장 놀하치 조손의 호령아리에 굴복하여 이빅륙십여년이나 종이 되며 신하가 되어 스름을 받고 겨우 오늘에 와서야 혁명소리가 잇었으니 또한 이상한지 안한가”³³⁾라는 서술자의 의문 속에서 신해혁명은 만주족과 한족(漢族)의 민족 경쟁으로 새롭게 변모한다.

31) 신승하·임상범·김태승, 『20세기의 중국』,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17쪽.

32) 「중국혁명략스 속」, 『권업신문』, 1912.5.26.

33) 「중국혁명략스 속」, 『권업신문』, 1912.6.2.

「중국혁명략스 속」의 민족적 성격은 내용 구성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신해혁명을 ‘공화정을 세운 근대적 혁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만주족과 한족(漢族)의 경쟁으로 파악하고 있는 「중국혁명략스 속」은 ‘데스장 손일선의출현’에서부터 신해혁명에 관한 서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데스장 력딩정칙의무효와혁명중즈의전파’와 ‘데삼장 홍슈전과청국’은 신해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역사적 배경의 주된 내용은 만주족과 한족(漢族)의 갈등이다.

‘제2장’에서는 청(淸)이 한족(漢族)과의 융화정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한족들이 끊임없이 “만주 배척”의 거동을 쉬지 않았다는 내용³⁴⁾이며 이러한 오랜 민족적 투쟁의 결과가 마침내 홍수전에 의한 ‘태평천국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임태홍은 홍수전이 제시한 ‘중국’의 개념을 분석했면서 ‘태평천국운동’을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하느님’을 모시는 문명국으로 묘사된 ‘번국’(蕃國)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의 중국이며 둘째는 이러한 중국에서 탈피하여 천부(天夫)가 직접 통치하는 태평천국으로서의 중국이다. 이러한 내용은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계기로 태평천국운동을 일으켰다는 홍수전의 개인 이력에 기반한 분석이다. 셋째는 만주족의 침략을 당한 중국으로서, 태평천국운동의 민족주의 성격을 강조한 것이다.³⁵⁾ 이처럼 태평천국운동에 민족주의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중국혁명략스 속」에 형성된 태평천국운동에는 오직 민족적 측면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태평천국운동의 발생 원인을 “명조가 망후로 뜻잇는 사림들이 숭흙과 분을 먹음고 만주비척홀싱각으로 민간에 전파하기를 쉬지안은 까닭”³⁶⁾으로 규정하면서 19세기 말에 발생한 태평천국운동을 1636년에 멸망한 명나

34) 「중국혁명략스 속」, 『권업신문』, 1912.6.16.

35) 임태홍, 「태평천국의 민족주의 사상」, 『정치사상연구』 14집 2호, 한국정치사상학회, 2008, 56쪽 참고.

36) 「중국혁명략스 속」, 『권업신문』, 1912.6.23.

라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태평천국운동을 만주족과 한족(漢族)의 오랜 투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누르하치에 관한 서술에서부터 비롯된 만주족과 한족(漢族)의 민족 대결 양상은 신해혁명의 의의를 보다 분명하게 구체화했다. “대며 중국이 인구가 스억만이며 토디가 루빅만방리며 또 영웅호걸이 디불 핍절하고 경제상, 정치상 지식이 남에게 나리지 안는빅성으로 엇지오릭 외족의 압제정부 밋해서 굴복햐야잇으리오 불헝 수빅년을 이비참헝 디위에 처햐 잇어슴은 더한당이후의 군신유의를 주창햐는썩은 선빅의말이 인심을 속박햐는 그물이 되엿던까답이라 …(중략)… 고로 오늘날 혁명은 민족의 특성과 시디의 풍조와 또 만주정부의 부퐁햐것이 이를 지촉햐야 성공게햐여 주엿도다”³⁷⁾라는 「중국혁명략스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해혁명의 의의는 오랜 기간 동안 한족(漢族)이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이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신해혁명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혁명략스 속」의 제목이 ‘신해혁명’이 아니라 ‘중국혁명’을 전경화한 이유는 오랫동안 한족(漢族)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마침내 만주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민족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전제정치에서 벗어나 공화정을 토대로 한 근대적 국가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던 신해혁명을 만주족과 한족(漢族)의 민족 투쟁으로 변모시킨 「중국혁명략스 속」의 서술 의도는 명확하다. 망국의 상황에서 ‘민족’을 화두로 생활하고 있는 러시아 한인들에게 『권업신문』은 한족(漢族)의 역사를 통해 한(韓) 민족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5. 러시아 한인과 역사·전기소설

37) 「중국혁명략스 속」, 『권업신문』, 1912.10.27.

서구로부터 전파된 ‘네이션’의 개념으로 망국의 상황을 막고자 했던 애국계몽기의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특히, 낯선 용어인 ‘민족’을 개념화하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데에 기여했던 역사·전기소설 또한 망국의 현실과 더불어 대부분 소멸되고 말았다. 애국계몽기에 활발히 창작 및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역사·전기소설의 갑작스런 소멸은 망국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

그러나 망국의 상황이 민족의 소멸까지 초래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한반도를 벗어난 타국의 디아스포라들에게 민족은 그들 삶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여전히 민족이 절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을 서사화했던 역사·전기소설의 존재는 필연적이었다. 실제로 해외 한인들을 중심으로 발간된 신문에서는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많은 역사·전기소설을 게재했다. 따라서 본고는 항일의식이 높았던 러시아 한인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이 지역에서 발간된 『권업신문』 소재 역사·전기소설의 서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고찰했다.

먼저, 러시아 한인 사회에서 강조되었던 민족주의의 특징이다. 러시아 한인 사회에서 ‘민족’은 단순히 저항 의식의 표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 귀화 여부에 따른 갈등, 항일과 관련된 민족 인사들의 갈등 등과 같은 내부적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족’은 활용되었다. 또한 새롭게 부임한 곤다티 총독의 한인 우호 정책에 따른 러시아로의 귀화 문제는 러시아 한인 사회에 정체성 혼란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국어와 역사를 통해, 러시아 한인들에게 한(韓)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둘째, 러시아 한인 사회에서 발간된 『권업신문』에 게재되었던 역사·전기소설 가운데 인물을 입전했던 서사의 특징을 고찰했다. 『권업신문』에 게재된 역사·전기소설에 입전된 인물은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장수와 안중근으로 구분되었다. 애국계몽기 역사·전기소설이 과거 전쟁 영웅을 민족 영웅으로 호출하여 민족의 유전자를 강인한 것으로 구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면, 『권업신문』 소재 역사·전기소설의 인물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친연성을 가졌다.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정문부, 황진, 임중량 등은 당대 일본 제국주의와 같은 일본에 대항하여 전쟁을 수행한 인물이며, 안중근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저격한 인물이다. 특히, 「만고의스 안중근전」은 동시대적 인물을 입전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fact)에 기초한 감동을 전달했으며 동시대 인물의 민족 영웅화라는 점에서 역사·전기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권업신문』 소재 역사·전기소설은 ‘강인한 민족’을 구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던 애국계몽기 역사·전기소설과는 달리, 일본이라는 제국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던 서사라 할 수 있다.

셋째, 『권업신문』에 게재되었던 역사·전기소설 가운데 사(史)와 관련된 서사의 특징을 고찰했다. 「중국혁명략스 속」은 『권업신문』의 역사·전기소설 가운데 유일하게 사(史)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신해혁명은 중국에서 최초로 공화정을 세운 근대적 혁명이지만, 「중국혁명략스 속」에서 신해혁명은 만주족의 오랜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 한족(漢族)의 민족 혁명으로 형상화되어 있었다. 신해혁명을 만주족과 한족(漢族)의 민족 투쟁으로 변모시킨 「중국혁명략스 속」의 서술 의도는 명확하다. 망국의 상황에서 ‘민족’을 화두로 생활하고 있는 러시아 한인들에게 『권업신문』은 한족(漢族)의 역사를 통해 한(韓) 민족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민족을 화두로 한 역사·전기소설이 경술국치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해외라는 지리적 이점(利點)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므로 역사·전기소설을 애국계몽기만의 대표적 서사 갈래라고 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전기소설은 공간적 경계를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러시아 한인 사회에서 발간된 『권업신문』의 역사·전기소설에 대한 본고의 연구는 그동안 애국계몽기로 한정되어 연구되었던 역사·전기소설 연구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의의와 더불어 1910년대 러시아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이산(離

散) 문학에 대한 조망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1. 기본자료

『권업신문』,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해조신문』

2. 참고자료

김계르만, 『한인 이주의 역사』, 박영사, 2005.

박환,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탐구당, 1995.

신승하·임상범·김태승, 『20세기의 중국』,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윤병석, 「계봉우의 민족운동과 한국학」, 『한국학연구』 2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윤인진·박상수·최원오 편, 『동북아의 이주와 초국가적 공간』, 아연출판부, 2010.

이상근, 『러시아·중앙아시아 이주한인의 역사』, 국학자료원, 2010.

이항준 외,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008.

이혜령, 「한글운동과 근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27집, 대동문화연구원, 2004.

임태홍, 「태평천국의 민족주의 사상」, 『정치사상연구』 14집 2호, 한국정치사상학회, 2008.

최기영, 「구한말 ‘공립신보’·‘신한민보’에 관한 일고찰」, 『동아연구』 17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앙드레 슈미드, 정여울 역,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 2007.

엄복, 양일모·이종민·강중기 역, 『천연론』, 소명출판, 2008.

H.포터 애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요시자와 세이치로, 정지호 역, 『애국주의의 형성』, 논형, 2006.

〈ABSTRACT〉

The Historical-Biographical Novels and the Diaspora

-Centering on Historical-Biographical Novels published on *Gwoneop* Newspaper-

Myung-Jin Song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Korean community in Russia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expression of 'nationalism' was still a talking point, and based on the findings,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Historical-Biographical Novels written for *Gwoneop* Newspapers published in Russia are examined.

The Historical-Biographical Novels written for *Gwoneop*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streams of biography and history. First of all, the Historical-Biographical Novels dealing with personalities focused on characters who could directly remind the Japanese imperialism. If the Historical-Biographical Novels during the period of patriotism and enlightenment were focused on war heroes of various historical era as national heroes to build the strong foundation for national history, the Historical-Biographical Novels written for *Gwoneop* were to remind Japanese imperialism and to promote the nationalism through them.

Second, the Historical-Biographical Novel, "In the Chinese Revolution" written for *Gwoneop* considered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revolution. The Chinese Revolution was a modern revolution that established a republican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in China, but the revolution in the context of Chinese revolution is described as a national revolution of Han Tribe

who get freed from the long rule of Manchurians. Gwoneop probably wanted to give the conviction in the future of Korea through the Han tribal history to the Koreans in Russia who lived as people of ruined nation whose Gwoneop main talking topic was 'nationalism'.

Key words : Gwoneop Newspaper, Historical-Biographical Novels,
the Koreans in Russia, diaspora, nationalism

논문접수일 : 11.15 / 심사기간 : 11.16~12.5 / 게재확정일 : 8.10
--